

가족 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부모 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차이검증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Mediating Effects Size between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이주리(Ju Rhee Le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mediating effects between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916 middle school students (males 3078, females 2838) in K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 (1) Family resources influence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2) Both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family resources an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3) The difference of mediating effects for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Key Words : 가족자원(Family Resources),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부모양육태도(Parenting), 사교육(Private Education).

I. 서론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이다(Sirin, 2005).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인회, 2003; 도종수, 2005; 박창남·도종수, 2005; 윤현선, 2006; 이은우, 2006; 임세희, 2007; 이재훈·김경근, 2007; Battle, 2002; Eamon, 2005; Park & Bauer, 2002).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간주되는 가구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대하여 '가족 자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아동·

¹⁾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 Rhee Lee, Departmen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E-mail : julie@cau.ac.kr

청소년 자녀들의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있다(이선애, 2009; Lugo-Gil & Tamis-LeMonda, 2008). Lugo-Gil & Tamis-LeMonda(2008)은 가족 자원이 양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영유아기 자녀들의 인지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이선애(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 자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연관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4년 이후 청소년의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연구들(윤현선, 2006; 이재훈 · 김경근, 2007; DeGarmo, Forgatch, & Martinez, Jr., 1999)에서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 등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형성 시킴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양육태도 이외에 특히 ‘사교육’이라는 변수가 개입된다. 학업성취는 우리 나라 문화에서 청소년기에 빠질 수 없는 주요 관심사이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뿐 아니라, 부모, 학교, 국가, 사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과 부모들은 공교육을 넘어 사교육에까지 집중하게 된다. 국가에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지만, 과열된 교육풍토 속에서 사교육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관련이 되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이재훈 · 김경근, 2007). 가족 자원이 풍부할수록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교육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최형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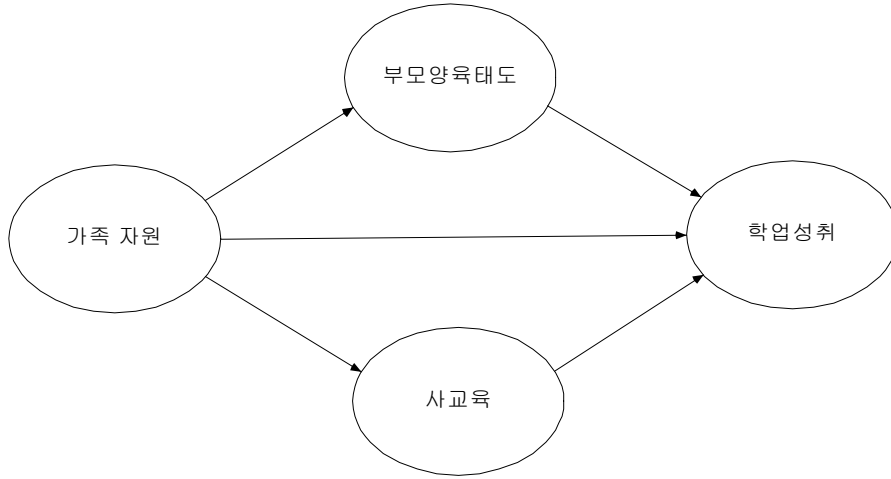
이처럼 가족 자원은 과정적 요인인 부모 양육태도와 경제적 지원인 사교육의 두가지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된다<그림 1>. 첫 번째 경로인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되는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족 자원이 부모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경은과 이주리(2008), 정소희(2007) 및 Lugo-Gil & Tamis-LeMonda(2008) 등의 연구에서 모두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은 질 높은 양육행동을 증가시켰다. 긍정적으로 형성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범문화적 보편성을 가진다. 아시아, 흑인,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Baumrind의 양육유형 중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분류되는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이거나 허용적인(permissive) 양육태도는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인 권위적인(authoritative)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15세-18세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온정도 없고 감독도 없는 방임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Pittman & Chase-Lansdale, 2001). 이러한 결과는 라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부모와의 갈등은 이들의 읽기와 수학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다(Eamon, 2005). 국내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좌우하는 주 변인으로 보고되어(임세희, 2007; 정현주 · 이주리, 2009), 부모양육태도는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 등 가족 자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재훈과 김경근(2007), 추상엽과 임성문(2007), 그리고 DeGarmo, Forgatch, & Martinez, Jr.(1999) 등은 이러한 매개 과정이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어, 이재훈과 김경근(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중학생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등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1>의 두 번째 경로인 사교육과 관련된 경로는 특히 우리나라 연구들을 통해 보다 관심 있게 보고되는 관계이다. 정부의 다양한 사교육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입시경쟁과 공교육에 대한 혼란과 불신 등으로 인해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초·중·고 재학 기간 동안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의 한 형태인 과외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김청자, 2001). 더욱 중요한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교육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은우(2006)는 과외 혹은 학원 수강 등의 사교육 여부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간 청소년의 평균성적차이의 17.5%가 사교육비의 차이로 설명되었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는 9.4%,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는 무려 32.9%나 사교육비로 인해 성적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치는 사교육비는 자연스레 대학진학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10% 증가할수록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확률이 0.8% 증가하였으며, 상위 31개 대학이나 의 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은 0.6-0.7% 증가하였다(최형재, 2008).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사교육은 청소년 시절 학교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한다(김청자, 2001). 이와 같은 사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재훈과 김경근(2007)의 연구, 박창남과 도종수(2005)의 연구에서 모두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등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을 통해 사교육을 경험한 중학생들일수록 학업성취 수준도 높아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가족자원이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두 매개 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과정에 대해 어느 쪽이 학업성취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변인 간 매개효과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매개과정을 분석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모든 매개변인들의 합산된 총체적인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어느 매개변인의 효과가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개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델타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인 간 차이검증을 통해 보다 정교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족 자원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더 강한 것인지 혹은 사교육을 통한 매개효과가 더 강한 것인지 탐색해 봄으로써, 가



<그림 1> 연구모형

족자원이 동일한 경우 부모양육행동과 사교육에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과열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 자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이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3>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중 어느 쪽이 더 강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2005(KEL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는

전국의 150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617명과 여학생 3291명 등 총 6908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로서, 표집추출방법은 층화군집무선추출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중 부모와 관련되는 변인이 포함되므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전체 데이터 중 양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SPSS 15.0을 사용하여 select cases를 통해 5916명(남 3078명, 여 2838명)의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471명(8.0%), 고졸 2770명(46.8%), 2년제 대졸 711명(12.0%), 4년제 대졸 1577명(26.7%), 대학원 이상 344명(5.8%)였고, 어머니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515명(8.7%), 고졸 3710명(62.7%), 2년제 대졸 586명(9.9%), 4년제 대졸 952명(16.1%), 대학원 이상 104명(1.8%)이었다.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은 100만원 이하 204명(10.3%), 101-200만원 973명(16.5%), 201-300만원 1571명(26.5%), 301-400만원 1181명(20%), 401-500만원 779명(13.1%), 501만원 이상 802명(13.6%) 였다.

2. 측정 도구

1) 가족 자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자원에 대하여 이선애 (2009)의 연구에 따라 가구 월평균 소득과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각각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까지 총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1점), 101-200만원(2점), 201-300만원(3점) 등 1301만원 이상(14점)까지 총 1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아버지 및 어머니 교육수준 각 7점씩 총 14점)과의 균등한 가중치를 두기 위함이었다.

2)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KELS에서 측정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들은 모두 ‘아버지(어머니)는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하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조그만 행동에도 칭찬을 해주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아버지(어머니)는 내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들어주시고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와 주신다.’ 등 각각 총 5문항씩이다. 모두 Likert 5 점 척도로 구성되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 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아버지 양육태도는 $M=3.55$, $SD=0.96$ 이었고 어머니 양육태도는 $M=3.63$, $SD=0.92$ 였다. Cronbach α 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경우 .913이었으며, 어머니 양육태도의 경우 .906이었다.

3) 사교육

본 연구에서 사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이외에 개인 과외, 그룹 과외, 학원 수강, 학습지, 통신 과외, 인터넷 과외 등 기타 다양한 사교육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실질적인 주요과목이라고 간주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각각 대하여 현재 사교육 수강 여부를 묻는 문항을 가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해당없음=0, 수강 중=1).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빈도는 국어의 경우 각각 2394명/3126명, 수학 1395명/4129명, 영어 1347명/4177명이었다.

4) 학업성취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주요 교과목으로 간주되는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실제 획득한 학업성취도 점수로 측정되었다(0점-100점 개방형 코딩). 국어의 경우 $M=65.49$, $SD=19.73$, 수학은 $M=58.86$, $SD=24.48$, 영어는 $M=57.62$, $SD=22.85$ 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차이 검증에는 M-Plus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팬텀변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AMOS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통해 수식을 계산하는 다변량 델타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델타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다양한 대비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다(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 처럼 하나의 연구모형 내에 척도 급간이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때에는 다변량 델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표준오차에 각 척도의 정보

<표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1.아버지 교육수준	2.어머니 교육수준	3.소득	4.아버지 양육태도	5.어머니 양육태도	6. 사교육	7.학업 성취
1	1						
2	.673**	1					
3	.353**	.344**	1				
4	.097**	.085**	.061**	1			
5	.088**	.086**	.048**	.876**	1		
6	.183**	.167**	.197**	.066**	.057**	1	
7	.347**	.321**	.216**	.122**	.126**	.256**	1

** $p < .01$

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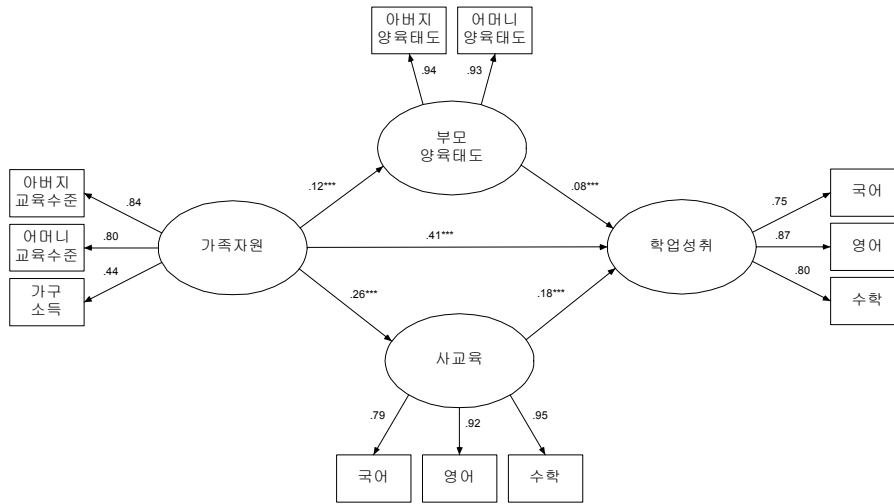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자원으로 측정된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및 소득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간 관계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1$), 가족자원과 사교육, 사교육과 학업성취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p < .01$). 가족자원과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 간 사이에서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성립되었다($p < .01$).

2. 가족 자원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

모델 추정법 ML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그림 1>의 연구모형은 적합도 지수

CFI=.988, TLI=.983, NFI=.959, RMSEA=.044 등으로 나타나 모델이 자료를 우수한 수준에서 적합시켰다. chi-square 값은 497.218($df=39$)로서, p 값이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이는 표본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N=5916$) 통계적 검정력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나타나는 특성이다(배병렬, 2007). 그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경로 계수는 모두 표준화 계수이다. 우선, 가족 자원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beta=.41, p < .001$).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을 통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가족자원에서 부모양육태도로 가는 경로와 부모양육태도에서 학업성취로 가는 경로가 각각 모두 유의하였고($\beta=.12, p < .001, \beta=.08, p < .001$), 가족 자원에서 사교육으로 가는 경로와 사교육에서 학업성취로 가는 경로도 각각 모두 유의하여($\beta=.26, p < .001, \beta=.18, p < .001$) 가족자원은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자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사교육이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한 후, 어느 쪽이 더 강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다변량 델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개의 매개효과에 대한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첫째, 각 경로들의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chi-square=497.218, $df=39$, $p=.000$
 CFI=.987, TLI=.979, NFI=.986, RMSEA=.045, N=5916
 *** $p<.001$

<그림 2> 가족자원과 학업성취 간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모두 알아야 하고 둘째, 각각의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추정치 사이의 공분산을 알아야 한다. 이 계수들에 대해서는 <표 2>를 통해 제시하였다. 여기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이다. 다변량 델타방법을 적용한 매개효과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각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사용해야 하므로 비표준화계수가 필요하다. 각 표준오차에 각각의 변인들의 척도 정보가 포함되므로 각 변인들의 척도 급간이 다양하더라도 다변량 델타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 비교 검증이 가능하다. <표 2>에 나타난 추정치에 따라 매개효과의 차이를 계산한 식은 다음과 같다.

$$a_1b_1 - a_2b_2 = (.001)(1.783) - (.001)(7.314) = .001783 - .007314 = -.005531$$

-.00553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표준오차를 계산한 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가족 자원, 부모양육태도, 사교육 및 학업 성취 간 경로들의 추정치, 표준오차 및 각각의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추정치 사이의 공분산

		추정치	표준오차
a_1	가족자원->부모양육태도	.001	.000
b_1	부모양육태도->학업성취	1.783	.292
a_2	가족자원->사교육	.001	.000
b_2	사교육->학업성취	7.314	.558
$sb1b2$	부모양육태도->학업성취와 사교육->학업성취 간 공분산		.003

$$b_1^2 s_{a1}^2 + a_1^2 s_{b1}^2 + b_2^2 s_{a2}^2 + a_2^2 s_{b2}^2 - 2a_1 a_2 s_{b1 b2} \\ = (1.783)^2 (.000)^2 + (.001)^2 (.292)^2 + (7.314)^2 (.000)^2 \\ + (.001)^2 (.558)^2 - 2(.001)(.001)(.003) = .004$$

따라서, $a_1 b_1 - a_2 b_2$ 의 표준오차는 $\sqrt{.004} = 0.06$
그러므로, $Z = -.005531 / .06 = -.09$

다변량 델타방법을 사용한 검증 결과, Z 값이 -.09로서 절대값이 .196보다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족 자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어느 쪽의 매개효과가 더 크고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족 자원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 두 변인의 매개효과가 모두 나타난다면 어느 쪽의 매개효과가 더 강한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첫째, 가족자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구인회, 2003; 도종수, 2005; 박창남·도종수, 2005; 윤현선, 2006; 이은우, 2006; 임세희, 2007; 이재훈·김경근, 2007; Battle, 2002; Eamon, 2005; Park & Bauer,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곧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 대학 진학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더라도 청소년 스스로가 열의를 가지고 학업에 충실하다면 성인이 되어 사회적 계층을 이동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사교육이 공

교육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있을 정도로 과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부모의 자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 등 가족 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사회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부 또는 학력의 대물림이 실제로 존재함을 반영한다.

둘째, 가족 자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양육태도 혹은 사교육이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윤현선, 2006; 이재훈·김경근, 2007; DeGarmo, Forgatch, & Martinez, Jr., 1999)을 지지한다. 부모가 교육수준과 소득 등의 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형성되거나 혹은 청소년의 사교육 수강이 증가함으로써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풍부한 가족 자원은 부모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지만, 부족한 가족 자원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르게 형성시키게 된다.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부모와 질 높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취 수준도 높아지는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부모와 안정되지 못한 관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수준도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소득과 관련이 깊은 가족 자원은 부모양육태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사교육 수강 여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다르게 형성시킨다.

셋째, 가족 자원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두 변인 간 매

개효과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의 매개효과가 더 크거나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에 대한 맹신으로까지 퍼져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학력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적성과 관계 없이 더더욱 치열한 입시 경쟁을 불러 일으킨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및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의·약대 등 보다 전문적인 상위 수준의 대학 진학을 향한 맹목적인 목표를 유발하여 사교육 시장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의 학업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 저소득층의 부모와 청소년들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의 매개효과가 결코 의미 있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부모양육태도와 대등한 수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 자원이 동일할 경우 부모양육태도나 사교육의 영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자원과 청소년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단지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혹은 사교육의 매개효과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총합적인 매개효과만을 살펴본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다변량 델타방법을 통해 두 매개변인의 매개효과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교육과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한편, 본 연구는 사교육에 대하여 단지 현재의 사교육 수강 여부만을 사용하여 측정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사교육의 수강 시간 혹은 학원,

과의 등 수강 형태에 따라서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교육 수강 시간 혹은 사교육 형태 등 보다 다양한 사교육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해 볼 것이 권장된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김청자(2001). 과외수업이 학교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외 수업의 필요성과 학습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 61-89.
- 도종수(2005).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지역격차 실태와 대책. **청소년학연구**, 12(4), 305-334.
- 박창남 · 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8), 281-303.
-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 도서출판 청람.
- 윤현선(2006).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 사회적 자본이론과 가족매개모델의 비교 검증. **청소년학연구**, 13(3), 107-135.
- 이경은 · 이주리(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자이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과 가정폭력의 매개역할. **놀이치료연구**, 12(3), 1-15.
- 이선애(2009).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 이은우(2006).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47-273.
- 이재훈 · 김경근(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175-208.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34, 55-78.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 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현주 · 이주리(2009).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평가의 관계에서 부모과정과 학교과정의 보호적-안정화 기능.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09-618.
- 추상엽 · 임성문(2007).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3), 135-157.
- 최형재(2008).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국제경제연구**, 14(1), 73-110.
- 홍세희(2009).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Program 3 구조방정식 모형 : 고급- S & M** 리서치 그룹.
- Battle, J. (2002).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class : The relative effects of race and socioeconomic status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overty*, 6(2), 21-35.
- DeGarmo, D. S., Forgatch, M. S., & Martinez, Jr., C. R. (1999). Parenting of divorced mothers as a link between social status and boy's academic outcomes : Unpacking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Child Development*, 70(5), 1231-1245.
-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Eamon, M. K. (2005). Social-demographic, school, neighborhood, and parenting influenc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163-174.
- Lugo-Gil, J., & Tamis-LeMonda, C. S. (2008). Family resources and parenting quality : Link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cross the first 3 years. *Child Development*, 79(4), 1065-1085.
- Park, H. S., & Bauer, S. (2002). Parenting practices,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3(4), 386-396.
- Pittman, L. D., & Chase-Lansdale, P. L. (2001). African American adolescent girls in impoverished communities :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outcom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2), 199-224.
- Sirin, S. R. (2005).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5(3), 417-453.

2009년 10월 29일 투고, 2009년 12월 28일 수정
2010년 1월 7일 채택